

목포에서 강릉까지 4시간대...민주, '강호축 철도망' 공약

충청 거쳐 서울 환승 없이 주파...X자형 국도교통망 완성 민형배 "물류·산업·관광 선순환 '균형발전'원동력 될 것"

더불어민주당은 19일 목포·광주에서 출발해 강릉까지 환승 없이 4시간 30분 만에 이동할 수 있도록 한 '강호축 철도망' 공약을 발표했다.

기존 경부축 중심의 철도망에 강호축 노선을 더해 'X(엑스)자형' 국도 교통망을 완성하겠다는 구상이다.

목포에서 출발한 노선은 광주·익산을 거쳐 청주·충주·원주·강원으로 이어진다. 호남·충청·강원 표심을 동시에 공략하려는 포석으로 읽힌다.

강호축 철도망 완성을 위해선 현재 진행 중인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2030년 준공 예정), 충북선 고속화 사업(2031년

준공 예정) 차질 없이 마무리해야 한다. 민주당은 오송 연결선 및 원주 연결선 등을 통해 총 소요 시간을 단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날 공약 발표 행사엔 정청래 총괄상임 선대위원장, 한재정 정책위의장과 함께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 신유한 충북지사 후보, 이상호 강원지사 후보가 참석했다.

정 위원장은 "지금은 목포에서 강릉에 가려면 서울까지 와서 환승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며 "강호축 철도망이 계획대

로 구축되면 번거로움이 사라지고 시간도 절반 이하로 단축된다"고 말했다.

그는 "한반도 평화의 봄이 만개하는 미래까지 생각하면 강호축 철도망이 유라시아 대륙철도를 이루는 중요한 역할도 기대된다"며 "강릉에서 목포까지 이어지는 도시에는 엄청난 경제적 효과가 뒤따를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는 "이제 대한민국 국토의 대가선 축인 강호축을 세우 방향을 바꿀 때"라며 "물류, 산업, 관광이 살아나는 선순환을 통해 대한

민국 균형발전의 강력한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재명 정부의 강력한 추진력, 중앙당의 확실한 뒷받침, 후보들의 실행력이 하나로 모일 때, 국토의 지도는 빠르고 확실하게 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상호 강원지사 후보는 "노무현 전 대통령 때부터 기획된 20년 된 숙원 사업으로,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해 철도의 엑스축이 만들어져야 한다"며 "강원도민들이 이 철도를 타고 호남 여행 가서 맛있는남도 음식을 먹을 수 있고 원주는 교통의 요

지가 돼 많은 관광객이 방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유한 충북지사 후보도 "철도 교통망이 약한 충북 지역의 한계가 있었는데도 민의 한숨이 환호성으로 바뀔 수 있는 중요한 계기"라고 했고, 민형배 전남광주시장 후보는 "서울서 부산으로만 길이 열려 사람도, 물류도 모두 서울로 쏠리는 현상이 있었는데 강호축 철도는 국토의 흐름을 바꾸는 국가 전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소중한 한 표, 광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19일 광주 광산구청 현관에 설치된 투표함 홍보 조형물 앞에서 시민과 공무원들이 '소중한 한 표, 광산의 미래를 만듭니다'를 외치며 투표 참여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광주 상무시민공원에 참전기념탑 건립 추진 시, 용역 보고회...보훈단체 의견 수렴·기본구상 논의

광주시가 국기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들의 뜻을 기리기 위한 '참전기념탑' 건립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광주시는 19일 서구 치평동 광주보훈회관에서 '참전기념탑 건립 공원조성계획 변경 및 기본구상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어 구체적 사업 추진 방향과 향후 계획 등을 논의했다.

보고회에는 월남전참전자회, 고엽제전우회, 6·25참전자회 등 광주지역 보훈단체 관계자와 회원, 용역 수행기관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참전기념탑 건립은 국기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이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미래세대에 계승하기 위한 사업이다. 광주시는 상무시민공원 내 기념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지난 2006년 월남참전유공전우연합회 광주·전남지부의 건립

건의로 처음 논의되기 시작했다. 이후 2023년 강기정 시장과 보훈단체 간담회 등을 거쳐 사업 추진이 본격화됐다. 광주시는 그동안 시립수목원, 광주공원, 상무시민공원 등 후보지를 대상으로 총 5차례에 걸친 현장 검토를 실시했으며, 지난해 최종 건립 예정부지로 상무시민공원을 확정했다.

이번 용역은 참전기념탑 건립에 따른 공원조성계획 변경과 기본구상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오는 7월 완료될 예정이다.

광주시는 용역 결과가 나오는데로 디자인 공모를 실시해 참전기념탑의 구체적 규모와 형태를 확정 지을 계획이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용역 추진 방향에 대한 설명과 함께 보훈단체 회원들이 제안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됐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한일 원유·LNG 협력 확대...수급·비축 정보 공유"

이 대통령, 경부 안동서 한일 정상회담 후 언론 공동발표 "중동평화 조속한 회복 공감...한일·한미일 공조 재확인" "조세이탄광 DNA감정 곧 시작...작지만 의미있는 첫 걸음"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한일 정상은) 최근 중동 상황에서 비롯된 공급망과 에너지 시장 불안정성으로 양국의 긴밀한 협력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는 점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북 안동의 한 호텔에서 가진 정상회담이 종료된 뒤 공동언론발표에 나서 "오늘 저와 다카이치 총리는 그동안 서로의교를 통해 쌓은 신뢰를 바탕으로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파트너로서 허심탄회한 논의를 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지역의 평화와 안정이 조속히 회복되어야 한다는 점에 (양 정상) 뜻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공감대를 바탕으로 양국은 지난 3월 체결된 '한일 공급망 파트너십'의 성과를 평가하고, 양국 간 공급망 협력에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소개했다.

또 "다카이치 총리는 한일 양국이 긴밀

히 공조해 공급망 위기를 겪는 여타 아시아 국가들과 공급망 협력을 심화하고자 제안했고 저도 적극 동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덧붙였다.

에너지 분야에 있어서는 "양국은 핵심 에너지원인 LNG(액화천연가스) 및 원유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지난 3월 체결된 'LNG 수급협력 협약서'를 바탕으로 양국 간 LNG 협력을 확대하고, 원유 수급 및 비축과 관련한 정보공유와 소통 채널도 심화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국제정세가 급변하는 가운데 여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한일·한미일 협력의 중요성도 재확인했다"며 "최근 한일 안보정책협회의가 최초로 차관급으로 격상된 것은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한반도 평화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 정세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고, 저는 남북이 평화롭게 공존하고 함께 성장하는 '씨'를 필요로 않는 평화의 한반도"를 구축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일본 조세이 탄광에서 발굴된 우해의 DNA 감정이 곧 시작된다"며 "양국이 과거사 문제에 있어 인도주의적 사안부터 협력해 나가는 작지만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한일 양국이 협력할 수 있는 분야는 앞으로도 무궁무진하다"며 "양국이 함께 번영하고 국민들이 그 혜택을 피부로 느끼는 '국민체감형' 협력 방안을 끊임없이 창출해 나가기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전남도, 함평 석두마을 체류형 휴양마을로 육성 해수부 어촌체험휴양마을 고도화 사업 선정...8억원 투입

전남도는 해양수산부의 '2026년 어촌체험휴양마을 고도화 사업'에 함평 석두마을이 선정돼 국비 4억 원을 포함 총 8억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체계적 휴양마을 개발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어촌체험휴양마을 고도화 사업은 국정과제 중 하나다. 어촌을 지역 관광자원으로 전환하는 어촌마을의 체험·숙박·편의 시설 확충을 통해 체류형 어촌관광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함평 석두마을은 2011년 2월 어촌체험휴양마을로 지정된 이후, 함평만 갯벌 생태자원과 해변 관광 인프라를 기반으로 가족 단위 관광객이 꾸준히 찾는 전남의 대표 어촌관광 마을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전남도는 이번 사업 선정에 따라 관광객 이용 편의와 체류 만족도를 높이기 위

해 △모듈러 제작과 설치 △노후 카라반 리뉴얼 △인내소 리모델링과 운영시설 확충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노후 숙박·편의시설을 개선하고, 관광객 안내 기능과 운영시설을 보강해 단순 체험 중심의 방문형 관광에서 벗어나 머물며 즐기는 체류형 어촌관광 거점으로 발전시킬 방침이다.

박태건 전남도 섬해양정책과장은 "이번 고도화 사업 공모 선정을 통해 석두마을의 체류 여건과 관광객 이용 편의가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마을별 특성을 살린 콘텐츠를 발굴하고 관광객 방문이 주민소득으로 이어지는 지속가능한 어촌관광 기반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제9회 지방선거, 내일부터 선거운동 시작 국회의원 보선도...후보 연설은 밤 11시까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21일부터 시작된다.

19일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와 전남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6·3 지방선거와 같은 날 이뤄지는 14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선거운동 기간은 오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다음달 2일까지 총 13일간이다. 이 기간 동안에는 누구든 공직 선거법에 제한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와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사무원 등은 후보자의 명함 배부가 가능하다. 어깨띠, 옷, 표찰, 기타 소품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도 할 수 있다. 선거구 안의 읍·면·동수의 2배 이내에서 거리에 현수막을 게시할 수도 있다.

공개장소에서의 후보자 연설·대답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만 이뤄져야 한다. 다만, 공개장소 연설·대답 차량에 부착된 확정장지 및 휴대용 확정장지, 녹음기와 녹화기는 오후 9시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소리 출력 없이 화면만 표시하는 경우에는 오후 11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지역구 시·군·구의원선거 후보자는 휴대용 확정장지만 사용할 수 있다.

후보자는 문자·그림말·음성·화상·동영상 등 선거운동정보를 자동정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하거나 전송대행 업체에 위탁해 전자우편으로 전송할 수 있지만 자동정보통신의 방법으로 발송하는 문자 메시지는 예비후보자 때를 포함하여 8회를 넘을 수 없다.

이현규·이산하 기자 gnnews1@

이재호 "한빛원전 1·2호기 연장 주민 안전 심각" 법대위 국회소통관 기자회견 "반대 국민 의견 수렴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호 의원(담양함평영광장성·사천)과 한빛원전 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법대위)는 19일 "한빛원전 1·2호기 수명연장과 부지내 고준위 핵폐기물 저장시설 건설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고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에 요구했다.

이 의원은 법대위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빛 1호기는 지난해 12월 수명을 종료했고, 2호기도 조만간 설계수명이 종료되는데 한수원이 이를 연장해 운영하려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설계수명 종료일까지 가동이 영공민과의 약속"이라며 "투명한 안전성 확보와 피해 대책 없는 수명 연장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고준위핵폐기물 저장시설에 대해서도 "오는 2038년까지 영구처분장 부지선정이 완료되지 못하면 임시저장시설이 영구저분장이 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임시저장 기간을 명확하게 명시하

라"고 외쳤다. 법대위는 지난달 30일 경북 경주시에 있는 한수원 본사를 찾아가 이런 내용을 요구하며 규탄집회를 열었지만 한수원은 대화를 거부했다.

한수원은 법대위 집회가 열린 이날 한빛원전 1·2호기 운영변경과 부지내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건립 운영변경을 위한 허가 신청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대위는 이에 대해 "한빛원전 1·2호기 및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건립 운영변경 허가 신청서를 즉각 반려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한빛원전 가동 40년 수명은 사고 및 고장으로 지역주민들은 안전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전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광주 사직도서관 임시휴관...5월 25일부터 7개월간

광주시립 사직도서관은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서관 환경 조성을 위해 오는 25일부터 12월 31일까지 7개월 동안 임시 휴관한다.

이번 휴관은 도서관 노후 배관 교체공사에 따른 것으로, '광주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시행된다. 휴관 기간은 공사진행 상황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될 수 있다. 사직도서관은 휴관 기간에도 시민들의 독서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동도서관과 기독병원 내 스마

트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며, 시립도서관 누리집을 통해 전자도서관 서비스와 희망도서 바로대출 서비스도 정상 제공한다.

도서 대출은 광주시립도서관 무등·산수·하남도서관 등 3곳을 이용하면 된다. 반납은 사직도서관 정문에 설치된 도서반납함이나 시립도서관 3곳에서 가능하다. 기타 사항은 사직도서관 사무실(062-613-7779, 7774, 7772) 또는 안내실(062-613-7787)로 문의하면 된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